

# 李齊賢 小樂府의 製作時期

입 주 탁\*

## I. 서 론

국어시가와 한시의 점점에서 나타난 문학적 현상 가운데 하나가 小樂府다. 소악부란 詩作을 남긴 문인으로 고려시대에는 李齊賢(1287~1365), 閔思平(1295~1359)이, 조선시대에는 申緯(1769~1845)과 李裕元(1814~1888)이 있다. 민사평의 소악부는 이제현 소악부에 화답한 것이므로 현재 문헌에 전하는 소악부 가운데 이제현의 소악부가 가장 이른 시기의 저작인 셈이다. 따라서 이제현의 소악부는 소악부라는 문학적 현상을 해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현이 언제 무엇 때문에 소악부를 제작하였는지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제현은 “觀民風, 知時變”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 논리는 “觀風俗, 知得失, 自考正”이라는 고대의 采詩論理와는 사뭇 다르다. 采詩官에 의한 采風 활동은 樂府詩를 제작하는 과정도 포함하는데, 문헌 기록을 헤아려보면 이러한 활동의 사례는 殿宗代(1146~1170)에 이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sup> 이렇게 의종대의 채시관 과연은 대대적

\* 부산대 국어교육과 교수

1) 殿王이 5도와 동·서 양계에 조서를 내리고 관리를 파견하여 모든 院字와 郵置에 써어 있는 詩들을 다 기록하게 해서 모두 御府에 거두어들에게 하여 그 風謠와 民物의 利病을 살피고 훌륭한 글귀와 빼어난 말을 가려 염이 詩選을 만들게 했다. (殿王, 詔五道及兩界, 分遣吏, 悉錄諸院字·郵置所題詩, 悉納御府, 察其風謠及民物利病, 因擇名章·俊語, 編上, 以爲詩選.) 李仁老, 『破閑集』 卷下.

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문인관료제 국가에서 관료라면 기본적으로 采風官의 임무를 떠게 마련이다. 따라서 비록 入樂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樂府詩는 늦어도 과거제도가 도입·정착된 이후 문인관료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소악부 제작 동기 또한 采風과 연관되어 이해해 온 것은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현의 소악부가 담고 있는 ‘民風’이 이제현 당대의 통치(時政)에 의해 새로이 나타난 생활상이나 생활 감정인가 하는 의문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물론 전체적으로 소악부에 반영된 사회상이 이제현 당대의 사회상과 겹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개개의 시의 대상이 되는 노래(혹은 곡)는 이제현 당대에 생성된 것이 아니라 그의 시대, 소악부를 제작할 시기보다 적어도 수십 년 앞선 시기에 생성되었다. 말하자면 소악부에 반영된 ‘민풍’은 이제현 시대의 지배층이 당대는 물론 그 이전 시대에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던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소악부는 기본적으로 채풍의 임무를 띤 관료의 입장에서 가지는 관심의 소산이라기보다는 그외는 사뭇 다른 측면에서의 관심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채풍의 목적이 당대 국왕을 비롯하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들이 스스로 ‘民本’의 정신을 일깨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통치를 해 나가도록 하는 데 있었다면 이제현의 소악부 제작의 현실적 동기는 이러한 목적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소악부 제작의 현실적인 동기는 무엇일까?

이제현이 민사평의 화답을 복돋우면서 지어준 소악부 후편(2章) 곧 두 편의 〈耽羅<sup>2)</sup> 가운데 하나가 正風이고 다른 하나는 變風이라는 점은 이 의문을 푸는 하나의 열쇠가 된다. 正風으로서의 〈탐라2〉와 變風으로서의 〈탐라1〉이 각각 어느 시대의 노래인지 밝히면 소악부의 제작 동기를 한층 더 편진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현이 자기 당대를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다면 그 나름의 이상적인 시대를 그려보았을 것이다. 그 이상적인 시대란

2) 소악부 후편(2장)의 각각의 시를 부르는 명칭은 연구자에 따라 달리 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두 편의 시는 모두 〈탐라〉의 곡을 ‘新翻’한 것임으로 〈탐라〉 또는 〈탐라곡〉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두 편의 〈탐라〉가 생성된 시기가 다르므로 앞의 것을 〈탐라1〉이라 부른다면 뒤의 것은 〈탐라2〉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제현이 인식하였던’ 正風의 시대가 된다. 하지만 시대가 이미 정풍의 시대에서 變風의 시대로 변화되었으므로 변화된 시대에 맞는 이상적인 세계를 설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현은 고려의 문신 가운데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에까지 올랐던 인물이므로 그러한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소악부에 대한 그의 관심은 채시관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현은 공민왕 즉위 직전에 우승상으로서 고려 국왕의 임무를 대행하였을 뿐 아니라 고려국왕이 겸하는 征東行省 승상의 역할도 대행하고 있었다. 공민왕 즉위 초는 원나라 중심의 세계 질서 체계가 동요하던 시기인 동시에 고려 내부에서 가까이는 원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수립하기 이전의 고려국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던 시기다. 이제현이 그 움직임의 중심에 자리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움직임을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을 주동하는 주체들의 의식 속에 무신집권이나 원나라 간섭기는 변풍의 시대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새로운 정풍의 시대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변풍의 시대에 변화된 권력 체계를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복고를 지향하며 변화된 권력 체계를 전면 부정할 때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의 과정에는 변풍의 시대가 되면서 불합리한 처사로 불가피하게 국가 질서 체계의 중심에서 이탈되었던 인물(혹은 그 인물로 대표되는 세력)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비록 변풍의 시대에 부상하였더라도 고려국의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질서 체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던 인물들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한 법이다. 그러한 배려가 없이는 〈탐라1〉에 투영된 변풍의 시대를 〈탐라2〉에서와 같은 정풍의 시대로 혁신해 나가기 힘들다. 혁신의 주체가 어떤 노래(혹은 곡)에 관심을 갖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소악부 제작의 현실적 동기를 밝히는 데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제작 시기다. 제작 시기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제작의 문맥을 복원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항상 같지 않으며, 생각과 감정을 형성시키고 표현하는 조건 또한 한결같지 않다. 따라서 이제현이 어떤 처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소악부 제작에 관심을 가졌느냐는 소악부 제작 동기를 밝히는 데 관건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 작업이 이제현 소악부 연구의 출발점에서 시작된 것은 마땅한 방향이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악부의 제작 시기는 아직도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현은 고려의 歌樂體系가 와해되어가던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다. 가악 체계란 국가 질서 체계이고, 그것은 권력 관계로 구상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가악 체계의 와해는 권력체계의 와해, 나아가 국가 질서 체계의 와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공민왕의 즉위는 이제현에게 와해된 국가 질서 체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했을 수 있다. 공민왕 즉위 직전 고려국왕(공민왕)과 정동행성 승상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제현으로 하여금 희망의 현실화에 대한 의지를 한층 강하게 갖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이제현의 소악부 제작 의도를 새로이 규명하려는 시도도 없지 않았다.<sup>3)</sup> 하지만 소악부의 제작 시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함으로써 새로이 도출한 결론은 가설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이 글은 이제현이 소악부를 제작한 시기를 논증함으로써 선행 논의를 수렴하여 소악부의 제작 동기를 한층 분명하게 해명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II. 제작 시기 논의의 비판적 검토

이제현의 소악부 제작 시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서수생이 시작하였다. 그는 『櫟翁碑說』의 저작 시기를 새로이 규명하면서 이제현이 소악부를 제작한 시기도 『역옹패설』을 저술한 시기와 같은 시기, 즉 56세(충혜왕 복위 3년, 1342년) 전후로 추정하였다. 제작 시기를 이렇게 추정하는 데 다음과 같은 사실과 추론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3) 임주탁, 「고려시대 국어시가의 창작 및 전승 기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2, 81~87쪽.

- ① 이제현은 忠惠王 1년(1340)에서 충혜왕 5년(1344) 사이에 은둔 생활을 하였는데 이 무렵에 『櫟翁碑說』과 같은 폐관문학 작품을 썼다. 이와 같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 소악부를 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 ② 이제현이 모방한 〈竹枝詞〉를 劉禹錫은 정치적으로 失意한 시기에 지었다. 따라서 이제현도 그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소악부를 지었을 것이다.
- ③ 악부는 시인이 詩作 능력이 농숙한 시기 곧 중·만년 이후에 짓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제현도 중·만년에야 소악부를 지었을 것이다.
- ④ 『益齋集』 卷第四는 대체로 제작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있는데 소악부는 공민왕 2년(1353)에 지은 시와 공민왕 7년(1358)에 지은 시 사이에 실려 있다. 따라서 소악부는 만년에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sup>4)</sup>

이 가운데 ①②③은 개연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되기에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 ①에서와 같이 시간적인 여유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소악부를 지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③에서와 같이 詩作 능력이 농숙한 시기에 지었다면 그리 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 또 『역옹패설』을 편찬할 시기가 곧 소악부를 지은 시기라고 단정할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어렵다. 두 저작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더라도 시기는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현이 유우석의 〈죽지사〉의 형식을 모방하여 소악부를 지었으므로 ②와 같은 추론은 일면 타당하다. 그런데 유우석이 은둔 생활을 한 시기에 〈죽지사〉를 지은 것은 아니다. 물론 外州의 刺史로 좌천된 시기(長慶 2년, 822년)였으므로 ‘실의’한 시기라는 진술은 옳다. 하지만 ‘실의’의 정도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이제현은 공민왕 嗣位年(1351)에 政丞이 되어 고려국왕과 征東行省 수상의 일을 대행하였고, 공민왕 6년(1357) 4월에 치사하였다. 그 사이에 知貢擧를 맡기도 하였고, 門下侍中을 지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적잖은 ‘실의’의 나날들도 있었다. 또 정계 은퇴는 자의에 의한 것이지만 정계 은퇴 이후 민사평 졸년(1359)까지 2년 동안의 시간도 그에게는 ‘실의’한 나날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徐首生, 「高麗歌謡의 研究: 益齋小樂府에 限하여」, 『慶北大學校 論文集』 第五輯, 慶北大學校, 1962.2, 9~10等。

그리고 ‘실의’ 여부 못지 않게 유우석이 〈죽지사〉를 짓기 전에 王叔文, 柳宗元 등과 함께 정치 혁신을 주도하다 좌천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우석은 晚唐으로 넘어가는 혼란한 시대의 유학자였다. 晚唐은 盛唐과 같은 통치의 기반이 와해된 시기였다. 당연히 가악 체계도 혼란해진 시기였다. 이런 시기에 유우석은 王叔文, 柳宗元 등과 結交하여 유가적 통치의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혁신을 꾀하였다. 韓愈와는 달리 柳宗元은 道敎와 佛敎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가졌다. 따라서 유종원과 結交하여 혁신운동에 가담한 유우석 또한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했다고 볼 수 있다. 開元·天寶 연간으로 대표되는 盛唐은 도교와 불교 세력을 융합하는 국가 질서 체계를 수립한 시대다. 梁州 등 서남쪽 변방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돌궐 같은 북쪽 변방 지역의 지배 세력까지 권력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도교·불교의 음악(道調法曲·胡樂)을 수용하여 가악 체계를 수립하였던 시대다. 이는 유우석이 가담한 정치 혁신이 성당과 같은 국가 질서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혁신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고 유우석은 朗州司馬로 좌천되었다. 이 후 10여 년 동안 유우석은 外州의 刺史로 떠돌았다. 蘆州·三峽은 그렇게 떠돌아다닌 外州에 속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유우석은 屈原이 그러하였듯이 자신의 생각을 새로운 노래(新詞)로 표현하였다. ‘異音而同樂’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유우석은 異端風이 짙은 기주·삼협 지방의 전승 가요를 대상으로 〈죽지사〉를 지었다(長慶 2년, 822년).<sup>5)</sup>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 이루지 못한 꿈을 좌천된 공간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풀어본 것이다. 그리고 10여 년 후 소환되었을 때 이 시기의 詩作 때문에 다시 좌천되기도 하였다.

이제현도 공민왕 즉위 초 유우석처럼 정치 혁신에 대한 꿈을 꾸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그의 꿈은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5) 유우석이 〈죽지사〉를 지은 시기가 朗州司馬로 재직할 때인지 蘆州刺史로 재직할 때인지 확정적이지 않다. 〈죽지사〉는 기주·삼협 지방의 형승이 그려져 있음에 비해 유우석이 〈죽지〉를 들었다고 종언한 建坪 지역이 『新·舊唐書』에서는 朗州에 속해 있다고 비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놓은 제작 시기가 822년밖에 없으므로 이 견해를 우선 죽은 것이다.

扈從功臣 趙日新과의 대립, 원나라의 내정 간섭, 그리고 奇皇后와 연계된 세력의 전횡에 맞설 힘을 갖고 있지 않았다. 물론 조일신의 난과 奇轍의 난을 평정한 이후 공민왕은 원나라의 至正 연호 사용을 정지하며(1356) 대대적인 혁신을 꾀하였다. 공민왕은 南京 천도로써 새로운 국가 질서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고, 이제현을 門下侍中에 임명하여 이 일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원나라의 내정 간섭의 통로를 제거함으로써 공민왕대 초기는 국가 혁신을 도모할 조건이 마련된 듯이 보였다. 하지만 이 무렵 이제현의 나이는 이미 일흔을 넘고 있었다. 일흔이면 引退하는 것이 고려의 전통적인 관례였다. 따라서 이제현은 인퇴를 요청하였고 공민왕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현은 더 이상 권력의 중심에서는 자신의 혁신에 대한 생각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면서 상황이 확연히 달라지기 전까지 이제현의 치사 이후에도 공민왕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적어도 표면상 이제현에게 이 무렵의 나날들 또한 '실의'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현이 유우석과 같은 처지에서 소악부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구체적인 제작 시기를 충혜왕 3년(1342) 전후로 推斷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도 가능한 추론이기는 하다. 그러나 중·만년이란 너무 막연하고 긴 시간이어서 소악부의 구체적인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결국 서수생이 제시한 네 가지 사실과 추론 가운데 객관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④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익재집』의 편차가 제작 연대순에 따른 것이 사실이라면 소악부는 공민왕 2년(1353) 5월 이후에서 공민왕 8년 1월 이전 사이의 어느 시기에 제작되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④의 사실과 추론에 대하여 성호경과 박현규·황병익은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었다.

성호경은 ④가 소악부의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익재집』 卷第四의 詩作들 모두가 제작 연대순으로 배열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박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그 대신에 민사평의 소악부 서두에서 이제현을 '宗伯益齋公'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소악부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周나라의 官制에 의하면

宗伯이란 예부의 장관을 이르는 말로 보아야 하므로 소악부는 이제현이 예부의 장관으로 있을 시기에 지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제현이 예부의 장관 자리에 있었던 시기가 1318년에서 1320년 사이이므로 이 무렵에 소악부가 제작되었다고 추정하였던 것이다.<sup>6)</sup>

이에 대해 박현규는 성균시를 매개로 좌주·문생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였다. 종백이란 호칭이 문생이 좌주의 아들을 일컫기도 한다는 李穡의 증언이 실제 당대의 관행을 객관적으로 적시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 성호경이 『의재집』 卷第四의 詩作들 모두가 제작 연대 순으로 배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의 근거로 제시한 「後儒仙歌爲崔拙翁作示及菴」의 제작 시기가 崔灝(1287~1340)의 졸년 이전이 아니라 이후임을 논증하였다. 그리하여 제작 시기 추정에 대한 서수생의 견해를 지지하지 되, 다만 만년의 ‘실의한 시기’가 아니라 ‘조정에 있을 시기’라고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게 된 것이다.<sup>7)</sup> 황병익도 민사평의 『급암시집』에 수록된 시작들이 대부분 만년작이라고 한 白文寶(?~1374)의 증언을 보태 서수생의 추정을 지지하였다.<sup>8)</sup>

박현규의 지적대로 이색은 공민왕 2년 예부시에서 이제현과 함께 고시관(同知貢舉)을 맡았던 洪彥博(1309~1363)의 아들 洪師範을 宗伯이라고 불렀다. 또 이제현의 아들 李彰路도 宗伯이라고 불렀다.<sup>9)</sup> 이는 좌주·문생의 관계가 예부시를 매개로 형성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라 풍속에 進士及第가 座主의 아들을 宗伯이라고 부른다”<sup>10)</sup>라고 한 이색의 증언에

6) 成昊慶, 「益齋 小樂府와 及庵 小樂府의 제작시기에 대하여」, 『韓國學報』 第61輯, 一志社, 1990.12, 2~21쪽.

7) 朴現圭, 「李齊賢·閔思平의 小樂府에 관한 研究」, 『韓國漢文學研究』 第18輯, 韓國漢文學會, 1995.12, 175~178쪽.

8) 黃炳益, 「의재(益齋)·급암(及菴) 소악부(小樂府)의 제작과 그 배경에 관한 고찰」, 『韓國民俗學報』 제11호, 한국민속학회, 2000.6, 143쪽.

9) 李穡, 〈次宗伯開城韻〉, 『牧隱藁』 詩藁 卷之十六. 이제현은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 1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 李彰路는 開城尹은 지냈고 막내딸은 恭愍王妃(惠妃)에 책봉되었다. ‘宗伯開城’은 좌주인 이제현의 아들 開城尹 李彰路를 가리킨다.

10) 國俗, 進士及第, 稱其座主之子曰宗伯. 李穡, 〈憲丁亥歲諸公三首〉, 『牧隱藁』 詩藁 卷之九.

서 ‘進士及第’가 성균시 급제자를 가리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려사』「選舉志」조의 “國子監試卽進士試”라는 설명이 조선시대의 기준으로 설명한 것일 뿐 고려시대의 進士試는 국자감시(=성균시)가 아니라 禮部試였다는 주장<sup>11)</sup>을 부정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민사평은 이제현의 아버지 李頊(1244~1321)이 고시관이 된 예부시(충숙왕 2년 1월)에서 급제하였다. 따라서 進士及第한 민사평이 좌주인 이진의 아들 이제현을 宗伯이라고 불러야 이색이 중언한 당시의 풍속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종백이란 말은 이우성이 “당시 文壇의 宗主格”<sup>12)</sup> 정도로 짐작한 바도 있거니와 ‘文章과 學問이 사람들로부터 尊崇받는 큰 스승’<sup>13)</sup>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다. 유가적 통치 이념과 제도를 도입한 왕조 국가에서 그런 인물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게 마련이다. 이제현은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益齋’라고 불렀다고 할 만큼<sup>14)</sup> 문장이나 학문에서 당대의 큰 스승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종백’이라는 호칭의 사용이 서수생이 추정한 소악부 제작 시기를 반박할 만한 단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수생이 제시한 ④의 사실과 추론은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 데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서수생은 ④를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 근거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①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④에 적시된 시기가 아닌, ①에 언급된 시기를 소악부 제작 시기로 추정하는 모순을 보여주었다. 박현규의 수정 의견이 오히려 타당성을 가지게 되는 대목이다.

『급암시집』에 민사평이 화답한 소악부가 단독으로 실리지 않고 같은 시기에 이제현이 보여주었던 여러 시편들에 대해 화답한 시편들과 함께 실려 있다는 점이 제작 시기 추정에 일정한 단서를 제공해 줄 듯도 하다.<sup>15)</sup> 그런

11) 許興植, 『高麗科舉制度史研究』, 一潮閣, 1996(1981), 127~134쪽.

12) 李佑成, 「高麗末期 小樂府: 高麗俗謠와 士大夫文學」, 『韓國漢文學研究』 第1輯, 韓國漢文學研究會, 1976.8, 13쪽.

13) 宗伯 ①官名 ①周代六卿之一, 掌宗廟祭祀等事, 卽后世禮部之職, 因亦稱禮部尚書爲大宗伯或宗伯, 禮部侍郎爲小宗伯. ②漢代官名, 掌宗室之事, 秦時本名宗正, 漢元始四年, 改名宗伯. ②稱文章學問受人尊崇的大師,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3, 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 1994(1989), 1351쪽.

14) 公自少儕輩, 不敢斥名, 必稱益齋, 及爲宰相, 人無貴賤, 皆稱益齋, 其見重於世如此. 李穡, 〈鷄林府院君謚文忠李公墓地銘〉, 『益齋集』 誌 1.

데 이미 박현규가 관심을 갖고 천착하였으나 서수생의 ‘만년의 실의한 시기’라는 데 대해 ‘만년 조정에 있을 시기’ 정도로 제작 시기를 수정하는 데 머물렀을 뿐이다. 같은 시기에 화답한 시편들의 제작 시기를 밝히기 어려웠기 때문에 두 가지 자료의 비교에서도 소악부 제작 시기 추정에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현은 언제 소악부를 제작하였을까? 이제현이 처음 민사평에게 여러 시편들과 함께 지어주었던 소악부(이하 ‘소악부 전편’이라 함)의 말미에 실린 다음 글에서 제작 시기 추정에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이에 주목하지 않았다.

어제 郭獅龍을 보았는데 及菴이 소악부에 화답하고자 하나 그 한 가지 일에 말이 중복된다고 여겨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는 ‘劉賓客이 죽지사를 지었는데 모두 기주·삼협·시이의 남녀들이 서로 즐기는 말이었고 東坡는 二妃·屈原·懷王·項羽의 일을 써서 긴 노래로 엮어 만들었으니 어찌 앞사람을 답습하였는가? 及菴은 다른 곡 가운데 뜻에 맞는 것을 골라 새로운 말로 바꾸면 될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다. 두 편을 지어 북돋우었다.<sup>16)</sup>

소악부 후편의 제목이기도 한 이 글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sup>17)</sup> 그 가운데 이제현 당대의 인물은 이제현 자신(‘나’)과 민사평(‘급암’) 그리고 둘 사이를 오가며 말(혹은 말과 시편들)을 전해 준 ‘곽충룡,’ 이렇게 셋이다. 여기서 이제현은 민사평을 及菴이란 호로 부르고 있음에 비해 곽충룡은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있다.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천착 이야기로 소악부 제작 시기를 밝히는 지름길일 듯한데, 제작 시기에 대한

15) 이제현이 소악부와 함께 민사평에게 화답을 바라며 지어준 시편은 모두 9편이다. 이 시편들에 대해 문생인 이색도 화답하였는데, 그 시편들은 『牧隱藁』 詩藁 卷之五에 수록되었다. 이색의 이 시편들은 공민왕 8년(1359)에 지은 것이다.

16) 昨見郭獅龍, 言及菴欲和小樂府, 以其事一而語重, 故未也. 僕謂劉賓客作竹枝歌, 皆夔州·三峽間男女相悅之辭, 東坡則用二妃·屈子·懷王·項羽事, 繼爲長歌, 夫豈襲前人也. 及菴取別曲之感於意者, 翻爲新詞可也. 作二篇挑之. 『益齋集』 卷第四 小樂府

17) 민사평은 두 편의 시를 ‘小樂府 二章’이라고 불렀다. 그런 점에서 긴 제목을 소악부 2장이라 대체해 부를 수 있다.

선행 연구에 과충룡이란 인물에 주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소악부 제작 시기의 하한선이 민사평의 출년인 공민왕 8년(1359) 7월 이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서수생, 성호경은 물론이고 박현규, 황병익 역시 제작 시기 추정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과충룡이란 인물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과충룡은 누구이며, 이제현은 어째서 민사평과는 달리 과충룡의 이름은 그대로 부를 수 있었을까?

### III. 郭獅龍과 소악부의 제작 시기

과충룡은 언제 태어났을까? 이제현이 소악부를 제작할 무렵 과충룡은 몇 살이었을까? 이런 불음에 객관적인 답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清州郭氏, 玄風郭氏 등 과씨 세보에서 과충룡이란 이름을 찾을 수 없고, 다른 문헌에서도 그의 生沒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의 제목 글에서 이제현이 민사평을 及菴이라는 호로 불렸음에 비해 과충룡은 이름을 그대로 불렀으므로 과충룡이 민사평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되어 이제현과 각별한 관계에 있던 인물이었으리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그리고 과충룡의 행적을 기능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도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전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卷十九 沔川郡 古跡항에 “君子池 (...) 知郡郭獅龍所開 (...) 李齊賢讚曰 (...) 衢樽臺 (...) 亦郭獅龍所築 (...) 康衢亭 (...) 亦郭獅龍所建 (...) 緺衣堂 (...) 亦郭獅龍所建,” 名宦항에 “高麗 徐堙 (...) 郭獅龍 以員外出知郡. 本書生不閑軍旅, 倭賊突至闔境奔鼠, 獅龍上馬橫槊, 勇氣激象, 一可當百, 先截其隘, 賊失利退.”와 같은 기록이 있고, 卷四十六 旌善郡 風俗항에 “高麗郭獅龍詩, 風淳俗朴無民訟,” 形勝항에 “郭獅龍詩, 百曲流川朝海遠, 天層絕壁倚天橫.”와 같은 기록들이 있다. 과충룡이 정선군의 풍속과 형승에 대해 시를 쓴 계기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君子池, 衡樽臺, 康衢亭, 緺衣堂 등 각종 시설물을 건축할 때에 知沔州郡事를 지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설물들에 대해 이제현이 지은 賛은 『益齋集』에도 〈沔州池臺堂亭銘〉이란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sup>18)</sup>

泗州池臺堂亭銘 郭翀龍少卿作，守時所開。

君子池 郭君種蓮其中，取濂溪說銘之。  
花實同時，不染於泥，有似君子，見愛濂溪。

### 衡樽臺

民吾同胞，橫渠之辭，獨樂何樂，衡樽在茲。  
緇衣堂

邑雖十室，有信與忠，好賢之化，比屋可封。  
康衢亭

澹臺不徑，魯論紀之，有道如砥，君子履之。

이 銘은 과충룡에 대한 이제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의 소산이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현은 과충룡을 ‘郭君’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이러한 호칭은 과충룡이 이제현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어떤 관계일까?

이제현 당대의 풍토를 고려할 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좌주·문생의 관계다. 실제 이제현과 민사평이 좌주와 문생의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자료가 『登科錄』에 실려 전하고 있다. 『등과록』의 다음 기사에 의하면 과충룡은 이제현이 知貢舉를 맡았던 禮部試에서 급제하였다.

恭愍王朝 元至正十一年辛卯卽位，大明洪武七年甲寅被弑，在位二十三年。

癸巳 二年 榜 五月 金海君李齊賢·贊成事洪彥博，取乙科三人·丙科七人·同進士十二人·明經二人

李 稽 穎叔 牧隱 傅中 文靖 戊辰 父穀 祖自成 曾昌世 外金饒 妻父權仲達 韓山人

朴尚夷 誠夫 潘南 直學 文正 壬申 父秀 祖允茂 曾宜 外金晶 妻父李穀 羅州人

權德生

司空寶 伯璽 大護軍

李 悅

郭翀龍

金元粹

金 銖 松亭 開城尹 父用宣 祖均 曾兌 外張純 妻父裴賢輔 海平人

芮英達

韓弘度 一作弘道

朴晉祿  
 宋 暎  
 柳廣元  
 李 玖 庚寅監壯  
 韓哲中 按廉使 父希迪 祖璉 曾平壽 外李桂齡 平山人  
 崔守惟 水原人  
 鄭 驥  
 金廣允  
 安福從 密直 父軸  
 李上元  
 田子壽  
 鄭 樞 子權 改名公權 圓齋 兼議清原君文簡 癸酉 父誦 祖才責 曾培 外崔文度 妻  
 父韓大淳 清州人  
 柳乙清 直學 父成 祖仁景 蒙父 白川人  
 孫 增  
 高以楫  
 金乙均<sup>19)</sup>

공민왕 2년(1353) 5월의 예부시에서 이제현이 知貢擧를, 洪彥博이 同知貢擧를 맡아 李繕 등과 함께 곽충룡을 선발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이제현은 곽충룡의 좌주가 되고 곽충룡은 이제현의 문생인 동시에 이색의 동년이 된 셈이다. 그러면 이 때 곽충룡의 연령은 얼마쯤이었을까?

이 해에 及第한 인물들의 연령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生沒年을 밝힐 수 있는 인물이라고는 이색(1328~1396), 朴尙衷(1332~1375), 鄭公權(1333~1382)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무렵을 전후한 시기에 예부시에서 급제한 인물들의 연령은 대부분 20대~30대 사이에 분포한다. 물론 예부시에서 17세에 급제한 인물도 있고 팔순을 넘은 나이에 급제하는 인물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스무 살 남짓한 나이에 예부시에 응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곽충룡 또한 세 인물과 비슷한 또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색이 스물 여섯, 박상충이 스물 둘, 정공전이 스물 하나였으므로 공민왕 2년에 곽충룡은 스무살 남짓하거나 20대 초·중반의 연령대에 있었다고 볼

19) 『登科錄前編』(마이크로필름,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卷2 56~57장. 이 자료는 許興植, 앞의 책, 294~295쪽에 이미 소개된 바 있다.

수 있다. 그렇다면 소악부의 제작 시기가 1320년 무렵이라고 추정한 성호경의 견해는 물론, 1342년 전후로 추정한 서수생의 견해도 적절치 않다.

이제현이 소악부를 지은 시기는 아무리 소급하더라도 공민왕 2년(1353) 5월 이전으로 소급하기 어렵다. 이제현이 괴충통이라고 부르거나 괴군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공민왕 2년 5월의 예부시를 매개로 좌주·문생의 관계를 맺은 이후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한선이 민사평의 졸년이므로 소악부는 공민왕 2년(1353) 5월 이후에서 공민왕 8년(1359) 7월 이전 사이에 제작된 셈이다. 서수생이 제시한 논거<sup>④</sup>에서 언급한 시기 곧 1353년에서 1358년 사이는 이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익재집』 卷第四에 수록된 시편들이 가능한 한 제작 연대순으로 배열되었다는 그의 판단이 틀리지 않은 셈이다. 〈소악부〉 앞에 수록된 시편 가운데 연대를 비교적 비슷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癸巳五月掌試棘園呈同知貢舉洪二相〉이고 바로 뒤에 수록된 시편이 〈戊戌正朝〉이다. 앞의 시는 공민왕 2년 5월 이후에 지은 것이고,<sup>20)</sup> 〈무술정조〉는 공민왕 7년(1358) 1월에 지은 것이다. 따라서 소악부는,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민왕 2년(1353) 5월 이후에서 공민왕 7년(1358) 1월 사이에 지은 것이다.

5년 남짓한 이 기간에 이제현이 進退를 되풀이하였다. 忠定王代에 이제현은 공민왕 세우기를 청한 일로 인해 3년 동안 實職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공민왕의 즉위가 이제현에게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리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공민왕이 즉위하기 직전 2개월여 동안 이제현은 고려국왕의 임무를 대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공민왕 즉위 초부터 이제현은 호종공신 趙日新으로부터 적잖은 시기를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첫째부인과의 사이에 둔 둘째 아들 李達尊의 딸이 奇仁傑과 혼인한 사이였기 때문에 奇敵의 專權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전면에 나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설령 개혁 의지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의지를 실천하기에는 적잖은 걸림돌이 가로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면을 이제현은 적극 타개해 나가지 못하였다. 공민왕 즉위년

---

20) 공민왕 2년 5월 '이후'라고 한 것은 이 시가 이제현이 홍언박과 함께 예부시 고시 관을 맡은 이후에 지은 것이기 때문이다.

(1351) 摄政丞兼權征東行省事로서 고려국왕의 역할을 대행하던 이제현은 공민왕 6년(1357) 4월에 치사하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거듭 인퇴를 요청하였다. 공민왕 1년(1352)에 세 차례나 표를 올려 사퇴를 청하였고 10월 무렵 조일신이 난을 일으켰을 때에는 爵位에 있지 않아 숙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sup>21)</sup> 또 조일신의 난이 평정된 후에 다시 우승상에 임명되었으나 공민왕 2년(1353) 정월에 다시 사퇴하였다. 예부시 지공거를 맡은 것도 府院君이라는 명예직(품직)에 있을 때였다. 공민왕 3년(1354)에 또 우승상에 임명되었으나 이듬해(1355)에 다시 사직하였다. 공민왕 5년(1356) 기철의 난이 평정(6월)된 이후에 金海侯에 책봉되고 門下侍中에 임명(12월)되어서는 공민왕을 도와 천도를 위한 南京役事を 맡기도 하지만(1357.2), 공민왕 6년(1357) 4월에 인퇴 요청이 받아들여져 致仕함으로써 實職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된다. 결국 이제현은 조일신의 반란, 기철의 반란을 겪는 와중에서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지 못하였고 끝내는 연로하여 치사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현의 치사를 기점으로 삼을 때 소악부 제작 시기는 그 이전 일까 아니면 그 이후일까? 이제현이 소악부 前篇을 지은 뒤 다시 後篇을 짓고 이에 민사평이 화답하기까지에도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또 이제현이 소악부를 제작한 시기는 과충룡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때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일까?

과충룡이 員外郎으로서 知湧州郡事로 부임해 간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고려사』 공민왕 8년(1359)조의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과충룡이 과충룡과 동일인이라면 이제현이 치사한 공민왕 6년(1357) 4월 무렵에 그는 知湧州事로 재직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6월 병인일, 知湧州事 郭仲龍이 洪州倉을 관리하면서 관기와 관노에게 쌀 20석을 내어주었으므로 職을 끊어 군대에 충원하였다.<sup>22)</sup>

21) 李穡, 〈鶴林府院君諱文忠李公墓地銘〉, 『益齋集』 第二輯(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익재집 I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1980), 부록).

22) 六月丙寅知湧州事郭仲龍, 監洪州倉出米二十石給官妓官奴, 削職充軍. 『高麗史』 卷39 世家 第39 恭愍王2 8年, 『高麗史節要』 卷27 恭愍王 8년조에는 出자가 盜자로, 石자가 碩자로 되어 있다.

狎자는 沖와 같은 글자이지만 仲자는 다른 글자이다. 그런 점에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곽충룡의 자리를 곽중룡이 대신하였거나 곽중룡의 자리를 곽충룡이 대신하였을 개연성도 없어 보인다. 또 洪州倉을 관리하면서 관기와 관노에게 쌀 20석을 내어 준 일은 沔州役事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신증동국여지승람』 卷十九 沔川郡 名宦항의 다음 기록과 이제현의 〈沔州池臺堂亭銘〉은 곽충룡이 知沔州事를 지내면서 王子池, 衢樽臺, 康衢亭, 緇衣堂 등을 건축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役事나 건축물을 유지에는 적잖은 인력과 재원이 소요되었을 것인 바 관기와 관노에게 쌀 20석을 내어준 것은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 것이다.

郭狎龍이 員外로서 知郡으로 나왔다. 본디 書生이라 군대일을 잘 알지 못하였다. 왜적이 갑자기 지경에 들어오니 모두가 달아나 숨었는데 곽충룡이 밀에 올라 칭을 벗기 들고 용기를 북돋울 요량으로 하나로서 백을 당할 태세로 먼저 적의 좁은 진로를 끊으니 적이 블리하여 물러났다.<sup>23)</sup>

이 기록만으로는 지면주사 곽충룡이 왜적을 물리치는 데 앞장선 것이 언제인지 추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고려사』에 의하면 면주를 침략한 왜를 물리친 사건은 공민왕 7년(1358) 5월에 있었다.<sup>24)</sup> 따라서 공민왕 7년 5월 이전부터 곽충룡은 지면주사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同年 李檮이 지은 두 편의 시 〈寄沔州郭員外狎龍〉<sup>25)</sup>와 〈聞忠州郭判事狎龍爲 軍千戶〉<sup>26)</sup>도 공민왕 8년 6월에 削職充軍된 곽충룡이 곽충룡과 동일인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寄沔州郭員外狎龍〉은 『牧隱藁』 詩藁 卷之四 24~25張에 실려 있다. 이 문집에 실린 시편들은 제작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卷之四의 1장에 丙申年(공민왕 5년, 1356년) 1월에 지은 〈丙申正月出齊化門東歸明日紀行〉가 실려있고, 8장에 공민왕 6년(1357) 1월에 지은 〈自

23) 郭狎龍 以員外出知郡。本書生不閑軍旅。倭賊突至闔境奔鼠，狎龍上馬橫槊，勇氣激象，一可當百，先截其隘，賊失利退。

24) 戊申。倭侵沔州龍城，我軍與戰獲賊船二艘。『高麗史』 卷39 世家 第39 恭愍王 7年。

25) 『牧隱藁』 詩藁 卷之四。

26) 『牧隱藁』 詩藁 卷之十五。

歎丁酉正月〉이 실려 있다. 14장에 〈九月十六日入直復用前韻是夜倭賊犯興天寺〉이 실려 있는데 『고려사』에 의하면倭가 충선왕과 韓國公主의 초상이 모셔져 있는 興天寺를 침탈한 것은 공민왕 6년(1357) 9월이었다.<sup>27)</sup> 이후 19장에 〈新春遣興〉, 22장에 〈夏日卽事〉가 각각 실려 있고, 〈寄泗州郭員外獅龍〉은 24~25장에 걸쳐 실려 있다. 이러한 시편의 배열순서로 따져볼 때 〈寄泗州郭員外獅龍〉은 공민왕 7년(1358) 여름 이후에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田祿生의 문집 『埜隱逸藁』의 편찬자(田萬英)는 『牧隱藁』의 編次에 의거하여 이색이 〈寄東京田判官〉과 〈寄鷄林田判官〉을 지은 시기를 각각 戊戌年(1358), 己亥年(1359)으로 비정하고 있다.<sup>28)</sup> 〈寄東京田判官〉은 『牧隱藁』 詩藁 卷之四에 〈寄泗州郭員外獅龍〉 이후에 실려 있음에 비해, 〈寄鷄林田判官〉은 卷之五에 실려 있다. 이러한 편차를 고려할 때 〈寄泗州郭員外獅龍〉가 공민왕 7년 여름 이후에서 공민왕 8년 이전에 지은 것임이 한층 분명해진다. 과충룡이 왜구를 물리치는 데 공을 세운 시기가 공민왕 7년 5월이라는 사실과 부합하는 셈이다.

이 시를 직접 살펴보면 지면주사 과충룡이 왜를 물리친 이후에 지은 것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이색보다는 年下의 인물이었음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泗州使君一縫掖	면주(泗州) 사군(使君)은 한 봉액(縫掖)이어서
不識軍門紅抹額	군문의 붉은 말액(抹額)을 알지 못했네.
忠肝義膽薄層雲	충의(忠義)로운 간답(肝膽)은 충진 구름을 얹게 하고
欲搏虎兕雙手赤	범과 들소를 잡으려고 두 손을 걷어붙였네.
況今分竹海邊城	더욱이 지금 임무를 맡은 곳이 바닷가의 성이니
萬口安危皆我責	만 사람의 안위(安危)를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하네.

27) 『高麗史』 卷39 世家 第39 恭愍王 6年 戊戌. 〈무술정조〉 다음에 충선왕의 진영을 海安寺로 옮긴 일에 대하여 이제현이 쓴 〈忠宣王眞容移安于海安寺〉가 수록되어 있다. 왜구의 침탈로 이듬해(1358) 초에 진영을 옮긴 것이다. 〈忠宣王眞容移安于海安寺〉의 제작 시기를 1357년 이전이라는 견해(성호경, 앞의 논문, 11쪽)는 적절치 않은 셈이다.

28) 按牧隱集編次, 已上兩詩(〈夢見東京田判官曉有府吏告歸者因寄此〉와 〈寄東京田判官〉), 係於戊戌, 已下兩詩(〈寄鷄林田判官〉과 〈哀哉行爲舍人埜隱之父作〉), 係於己亥也. 『埜隱逸稿』 卷4 附錄 遺事 2.

賊船忽至疾如飛	갑자기 이르는 도적의 배는 나는 듯이 빠르고
風帆截斷江天碧	돛은 끊어지는데 강 위 하늘은 파랗네.
電光閃閃揮劍鋒	번개 빛이 번쩍거리듯 칼끝을 휘두르며
下岸叫呼仍突擊	아래 언덕에서 소리치며 돌격하네.
倉黃兒女走且僵	창황한 아녀자들은 도망하다 넘어지고
不辨鳬鷺藏藪澤	물오리와 갈매기 있는 것을 가리지 않고 수택(藪澤)에 숨네.
使君方食推片安起	사군(使君)은 금방 밥을 먹고 상을 밀치고 일어나더니
髮上衝冠呼伍伯	머리털이 관(冠)을 찌를 듯 군졸을 부르네.
身佩橐鞬躍上馬	몸에 전대와 동개를 차고 말 위에 뛰어오르면서
橫槊直前如霹靂	창을 비끼고 번개처럼 곧바로 앞으로 나이가네.
軍中勇氣一當百	군사 가운데 용기가 일당백(一當百)이라서
折得賊鋒先截隘	도적의 예봉(銳鋒)을 쥐어서 먼저 막아 버리네.
將軍錯愕驚異才	장군의 창졸(倉卒)간의 경이로운 재주를
太史牽聯書史冊	태사(太史)는 계속하여 사책(史冊)에 적네.
勸君努力繼前積	노력하여 앞의 공적을 잇기를 그대에게 권하나니
聖主垂衣致苗格	성주(聖主)가 옷을 내리고 묘격(苗格)에 이르리. <sup>29)</sup>

모두 22구로 이루어졌는데, 제1~6구는 곽충룡에게 지면주사의 임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이다. 왜의 침탈이 잦은 상황에서 곽충룡이 적극 나선 데 대해 칭찬하고 지면주사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원시의 ‘分竹’은 곽충룡이 知郡(知沔州郡事)임을 나타낸 말이다. 제7~12구는 왜적이 침탈한 정황을 묘사한 것이며, 제13~18구는 곽충룡이 앞장 서서 왜적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운 사실을 서술한 것이다. 글자의 표현까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사와 같은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 앞서의 추정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제19~22구는 그와 같은 ‘前積’을 잇도록 더욱 노력하면 ‘聖主’의 배려를 받아 功臣의 반열 혹은 廟堂의 지위<sup>30)</sup>에 오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이야기함으로써 고생하는 동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 ‘前績’이란 바로 공민왕 7년 5월의 왜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공을 세운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에 배어 있는 시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이색은 곽충룡과 동년이지만 그보다 나이가 많았

29) 번역은 여운필·성범중·최재남 역, 『목은시고』 2, 월인, 2000, 326~327쪽의 번역을 따랐다.

30) 위의 책, 327쪽 참조.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공권이나 박상충보다 이색은 네댓 살 많았으니 과충룡은 앞의 두 인물과 비슷한 또래였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왜를 격퇴하여 '前績'을 세운 지면주사 과충룡의 자리를 이듬해(1359)에 과중룡이 대신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공민왕 8년(1359) 6월에 削職充軍된 知泗州事 과중룡이 곧 과충룡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색의 다음 시 또한 '削職充軍'된 과중룡이 과충룡과 동일인이었음을 일정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少年英邁鄙迂儒, 젊을 때에 영특하고 뛰어나 쓰이지 않는 儒者를 낫추더니  
勇折倭鋒向海隅. 용기는倭의 선봉을 꺾어 남쪽으로 나아갔었지.  
縱是多多口益辦, □이야 많을수록 분명하려니  
武才何止長千夫. 武才가 어찌 千夫의 우두머리에 그치랴.(□: 闕字)

이 시는 『목은고』 「시고」 卷之十五에 〈去歲二月二十四日肅拜今忌周年矣吟成絕句喜幸之至也〉보다 앞에 실려 있다. 대략 앞의 시보다 10여 년 뒤에 지어진 셈인데, 예부시에서 급제한 과충룡이 이 무렵에 군대를 전전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색은 지면주사를 지낼 때 왜적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웠던 과충룡에게 '前績'을 이으면 공신의 대열이나 묘당의 지위에 오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말한 바 있지만 이 무렵에 과충룡은 '軍千戶'의 충주 판사에 임명되었을 뿐이다. 이 점을 이색은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萬戶 정도의 관직에 있어야 할 인물이 千戶의 관직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색의 동년에 대한 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과충룡이 10여 년이 지난 뒤에도 武官外職을 전전하며 이색과는 현저하게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이유는 공민왕 8년 6월 '삭직충군'된 과중룡이 과충룡이라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과중룡이 곧 과충룡이므로 이제현은 공민왕 8년 6월 이후에는 그를 만나 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익재집』 卷第四의 編次를 무시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과충룡이 王子池, 衢樽臺, 康衢亭, 緇衣堂 등을 신축하는 泗州役事を 추진한 것은 削職充軍되기 이전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공민왕 7년 5월 이전 시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削職充軍의 사

유였던 洪州倉 出米 사건은 면주 역사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이 사건이 문제로 비화된 시기가 공민왕 8년 6월임은 분명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공민왕 7년 5월 이전 이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민왕 7년 5월에 왜적과의 격전을 치르고 난 이후의 시기에 역사를 추진하였다 보기도 어려운 일이다. 왜적 침탈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전투까지 벌인 마당에 인적·물적 소요가 많은 역사를 시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과충룡이 면주 역사를 시작하여 완수한 시기는 공민왕 7년 5월 이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현이 〈瀋州池臺堂亭銘〉을 써 준 시기도 공민왕 7년 5월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면주사의 이동이 어느 만큼 자유로웠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과충룡이 면주 역사를 완수하고 좌주인 이제현에게 각종 건축물의 銘을 부탁하였을 것인바, 그 방식은 직·간접적인 것이 다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직접적인 방식을 택하였다면 과충룡은 공민왕 7년 5월 이전에 민사평과 이제현을 차례로 만났을 개연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을 선택하였다면 과충룡은 지면주사로 부임해 가기 이전에 민사평과 이제현을 차례로 만났다고 보아야 한다. 과충룡이 지면주사로 부임한 시기가 언제나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공민왕 7년 5월에서 8년 6월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과충룡이 지면주사로 재직한 것은 분명하다. 또 공민왕 7년 5월 이전에 면주 역사를 완수하였다면 과충룡은 늦어도 공민왕 7년 초에 지면주사로 부임해 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직의 평상 임기가 얼마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임기 도중에 삭직되었다 하더라도 부임 시기를 가능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현의 소악부 후편의 제목이기도 한 다음 글을 보면 면주 역사에 소악부에 투영된 이제현의 의식이 일정하게 투영되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근자에 어떤 達官이 鳳池蓮이란 老妓에게 “자네들은 오로지 부유한 종이라면 곧잘 따르면서 사대부가 부르면 어찌 이다지도 더디 오느냐?”라고 장난을 걸었다. “지금 사대부는 부유한 장사꾼의 딸을 맞아 두 집 살림을 차리지 않으면 장사꾼의 종을 첨으로 들이니 우리들이 종과 속인을 가린다면 어떻게 朝夕을

폐우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 좌중이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鮮于樞의 〈西湖曲〉에 ‘西湖 畫舫에는 뉘 집 여인이기에, 纓頭를 탐내어 억지로 노래하고 춤을 추느냐?’라고 하였고, 또 ‘언제 壯士를 얻어 千金을 내던지며, 湘間濮水에서 〈行露〉를 부르게 할까?’<sup>31)</sup>

正風 〈行露〉를 부르는 시대란 사대부들이 군주에 대한 변함 없는 절개를 지키는 시대의 다른 표현이다. 송나라가 멸망한 후 사족들은 西湖 畫舫에서 생계를 위해 纓頭를 얻으려고 억지로 歌舞를 하는 여자들의 처지가 마치 자신들의 처지와 같다고 생각한 것인데, 鮮于樞는 〈서호곡〉으로 그런 생각을 드러낸 셈이다. 〈서호곡〉에서 선우추는 여인네들이 전두를 탐하며 억지로 노래와 춤을 과는 시대상을 서글프게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湘間濮水와도 같은 變風 혹은 淫風의 시대를 청산하고 〈행로〉를 부르는 시대의 도래를 희망하고 있기도 하다.

泗州役事에도 士族이 당당한君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대를 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시대란 纓頭에 얹매이지 않고 ‘壯士’에 대해 절개를 다짐하는 〈行露〉의 노래를 부르는 正風의 시대이기도 하다. 관기와 관노에게 쌀 20석을 내어준 일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과충룡은 좌주인 이제현의 소악부 제작에 투영된 의식에 일정하게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泗州役事를 추진하기 이전에 이제현이 소악부 후편까지 제작하였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제현이 치사한 공민왕 6년이나 그 이전 시기가 제작 시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이제현이 치사하기 이전이나 이후나는 여전히 추단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된 셈이다. 그러면 더 이상의 길은 없는 것일까?

31) 近者，有達官戲老妓鳳池蓮者 “爾曹惟富沙門是從，士大夫召之，何來之遲也？” 答曰 “今之士大夫，取富商之女爲二家，否則妾其婢子，我輩苟擇繼素，何以度朝夕？” 座者有愧色。鮮于樞西湖曲云 ‘西湖畫舫誰家女，貪得纓頭強歌舞.’ 又曰 ‘安得壯士擲千金，坐令桑濮歌行露。’ 宋亡，士族有以此自養者，故傷之也。『益齋集』卷第四 小樂府。

#### IV. 耽羅曲과 소악부의 제작 시기

소악부 후편의 대상이 된 〈탐라1〉, 〈탐라2〉는 소악부가 이제현이 치사한 이후에 제작되었으리라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단서를 갖고 있는 듯하다. 『고려사』 「地理志」에 의하면 탐라는 삼별초의 난을 진압하면서 원나라 직할지로 수용된 이후 원나라에 귀속되었다가 고려국으로 반환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탐라는 충렬왕 20년 국왕의 요청에 따라 고려국에 귀속되지만 충렬왕 26년에 원나라 황실의 목장이 되면서 원나라 직할지가 된다. 충렬왕 31년에 다시 고려국에 반환되지만 충숙왕 5년(1318)에 草賊들의 반란을 계기로 다시 원나라 직할지가 된다. 물론 원나라에서 관리가 파견되는 시기에도 고려에서는 별도의 관리를 파견하고 고려국에 환속되어 있는 시기에도 원나라에서 관리를 파견하였다. 공민왕 11년(1362)에 탐라가 원나라에 귀속되기를 요청하자 원나라에서는 萬戶 文阿但不花를 파견하는데 문아단불화는 오히려 그러한 요청을 주도하였던 세력을 처단한다. 그리고 공민왕 16년(1367)에 탐라는 고려에 환속된다. 이후에도 탐라는 이와 같은 운명을 되풀이한다.<sup>32)</sup> 그런데 이 기록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충숙왕 5년에 원나라에 귀속되었던 탐라가 공민왕 11년에 다시 탐라에 귀속되기를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그 사이에 탐라가 고려에 귀속된 시기가 없었다면 기록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제현이 치사하기 두 달 전인 공민왕 6년(1357) 2월에 탐라가 고려국에 투항해 왔다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월 (...) 신해일. 濟州가 와서 항복하고 方物을 바쳤다.<sup>33)</sup>

이 사건이 이제현이 소악부 후편의 대상을 〈탐라곡〉으로 설정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면 소악부 후편은 이제현이 치사한 이후에 지은 것임이 분

32) 『高麗史』 卷57 志 第11 地理2 羅州牧 耽羅縣.

33) 二月 (...) 辛亥. 濟州來降獻方物. 『高麗史』 卷39 世家 第39 恭愍王 6年.

명해진다. 소악부 후편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긴 제목은 앞에 인용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都近川頽制水坊	都近川 물막이 둑이 무너지면
水精寺裏亦滄浪	水精寺에도 물이 넘치지요.
上房此夜藏仙子	上房은 오늘밤에도 仙子를 숨겼으니
社主還爲黃帽郎	社주가 되래 黃帽郎이 될 테지요.

(…)<sup>34)</sup> 耽羅 이 曲은 매우 鄙陋하지만 民風을 보고 時變을 알 수 있다.

從教壘麥倒難披 거꾸러진 보리 이삭 그대로 두고

亦任丘麻生兩歧 가지 생긴 삼도 내버려두지요.

滿載青甕兼白米 청자와 백미를 가득 싣고

北風船子望來時 북풍에 배 올 때만 기다리지요.

탐라는 땅이 좁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예전에는 전라도에서 瓷器와 쌀을 파는 사람이 때때로 발걸음을 하긴 하였으나 드물었다. 요즘에는 관가와 私家의 소와 말이 들을 뒤덮어 개간할 곳이 없어지고, 왕래하는 관리들이 배틀에 북드나들 듯하여 장수들을 환영하는 일에 괴로움을 겪으니 그 백성들의 불행은 잦은 變亂이 생겨나는 까닭이다.<sup>35)</sup>

앞의 시는 무신 집권기 이후 원나라 간섭기 동안의 탐라의 실상, 말하자면 變風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에 비해 뒤의 시는 〈서호곡〉에서 인용된 〈행로〉에 상응하는 正風의 노래를 엮긴 것이다. ‘知時變’의 ‘時變’은 정풍과 변풍의 차이를 가리킨다. 그러면 이 글에서 이제현은 변풍과 정풍의 실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땅이 비좁고 척박하여 수확이 변변치 않고 또 생활 물자를 실어 나르는 상인들의 왕래도 찾지 않은 궁핍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耽羅民의 생활 환경은 잦은 변란이 생기기 이전 곧 ‘요즘’이 아닌 ‘예전’의 상황이다. 뒤의 시에서 육지에서 북풍을 타고 생활 물자를 싣고 오는 商船을 애타게 기다리는 작중 인물은 말하자면 정풍의 시대의 탐라민의 형상에 다름 아니다. 땅이

34) 이 곳에 생략된 부분은 각주 31)을 참조할 것.

35) (...) 耽羅此曲，極爲鄙陋，然可以觀民風知時變也。 (...) 耽羅地狹民貧，往時，全羅之貢販瓷器稻米者，時至而稀矣。今則官私牛馬蔽野而靡所耕墾，往來冠蓋如梭，而困於將迎，其民之不幸也，所以屢生變也。『益齋集』卷第四 小樂府。

좁고 척박하여 제대로 차라지 않는 보리라면 굳이 수학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북풍을 따라 자기와 쌀 등의 생활 물자를 실어오는 상선은 작중 인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생활고를 해소해 주는 救援의 손길이다. 작중 인물은 구원의 손길인 商船에 대한 우호적·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앞의 시에 등장하는 작중 인물의 태도는 비판적·부정적이다. 都近川은 朝貢川이란 뜻이다.<sup>36)</sup> 탐라에서 고려국에 바치는 조공을 集散하는 곳이다. 따라서 도근천 물막이 둑이 무너진다는 것은 조공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조공의 일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인물이 上房이다.<sup>37)</sup> 그런데 상방은 늘 仙子를 감추어 두며 私慾에 탐닉하고 있을 뿐이다. 작중 인물은 바로 그러한 인물과 그로 인해 만연된 부정적 현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民風에 현격한 차이가 생긴 셈인데 이것이 곧 變風이다.

그런데 時變이 생기기 이전에도 탐라민의 생활 환경은 이제현이 설명한 것과는 사뭇 달랐다. '예전'은 변란이 일어나기 이전의 고려시대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진대 그 시기는 가깝게는 의종대 말기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려사』의 역사 기록을 종합해 볼 때 고려 시대 탐라에 변란이 생기기 시작한 시기는 다음과 같이 의종대 말기 무렵이기 때문이다.

耽羅安撫使 趙冬曠가 入見하였다. 耽羅는 험하고도 멀어서 공격하여 싸워도 이르지 못하는 곳이나 토양이 기름져 경비가 나오는 곳이다. 옛날에는 貢納과 賦稅가 번거롭지 않아 백성이 그 업을 즐겁게 하였으나 최근에는 관리가 불법을 저질러 賊首 良守 등이 모반하여 守宰를 내쫓았다. 왕이 조동회에게 명하여 節을 잡고 타이르도록 하니 적들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良守 등 2인과 그 黨與 5인은 참수하고 나머지는 모두 穀帛을 주어 慰撫하였다.<sup>38)</sup>

36) 都近川 (...) 一名水精川, 一名朝貢川。州人語齒, 都近字則朝貢字之誤。『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濟州 山川。

37) 王府家中, 主管食物款項的帳房, (...) 辦理食物出納銀兩曰上房。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1, 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 1994(1990), 278쪽。

38) 耽羅安撫使趙冬曠, 入覲。耽羅險遠, 攻戰所不及, 壞地膏腴, 經費所出。先時, 貢賦

의종대 말기 高兆基 사후<sup>39)</sup>에 耽羅에서 일어난 반란 평정에 관한 기록이다. 토양이 기름져 경비가 나오는 끗이라는 말은 貢納과 賦稅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다. 都近川이란 말도 貢納을 하면서 생긴 지명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반란이 일어나기 이전의 탐라의 실상도 이제현의 ‘예전’의 탐라에 대한 설명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뒤의 시의 대상이 되는 노래 〈耽羅2〉는 어떤 노래이며 어떻게 유지 전승된 것일까?

이 의문과 관련하여 耽羅가 靖宗 즉위년에 열린 팔관회에 參禮하였고 名山大川의 하나로서 궁중을 비롯한 수도지역에 전하는 祀典의 神祇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탐라2〉가 중앙에 권력 기반을 확립하여 팔관회에 參禮하기도 한 탐라 지배 세력에 의해 제작되거나 그 세력 집단의 이해 관계를 일정하게 반영하여 제작되었을 개인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팔관회는 천령·오악·명산대천·용신을 즐겁게 하는 제전이었으므로 이 제전에서 고려의 최남단 변방인 탐라를 鎮守하는 神明도 향연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무신 집권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의 명산대천의 神祇에 勳號를 더하는 조치가 취해질 때 耽羅의 神祇에도 勳號가 더해졌는데,<sup>40)</sup> 이는 탐라 또한 중앙에서 관리하는 祀典에 명산대천의 하나로 등재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신기를 위무하는 가악 래퍼토리도 궁중과 조정에서 관리하는 歌典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탐라 민이나 탐라를 통치하는 세력 집단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틀로도 존재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神·人 합일의 관념이 공유될 때라야 노래가 비로소 祭典

不煩，民樂其業，近者，官吏不法，賊首良守等，謀叛，逐守宰。王，命冬曠，持節宣諭，賊等自降，斬良守等二人及其黨五人，餘皆賜穀帛，以撫之。『高麗史』卷18 世家 卷第18 案宗2 22年(1168) 3月 11月 丁丑。

39) 고조기는 右僕射 高愈의 아들로 예종대 초에 급제하여 의종대 초에政堂文學을 지냈다. 鄭敍와는 달리 金存中이 用事할 무렵에 그와 영합하여 尚書左僕射를 거쳐 平章事에까지 이르렀다. 의종 11년(1157)에 죽었다(『高麗史』卷98 列傳 卷第11 高兆基). 이 때의 탐라 반란은 그 조짐이 고조기 사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40) 『高麗史』卷24 世家 卷第24 高宗 40年 10月。

의 공간과 같은 신성한 공간에서 향유될 수 있었을 것인바, 탐라의 신기의 목소리가 곧 탐라민의 목소리로 인식되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탐라는 정종 즉위년 송나라 商客, 東西蕃과 함께 팔관회에 參禮하기 시작하였고, 이 후 이러한 관행이 常例化되었다. 이처럼 탐라 세력 집단이 외국 상인들과 함께 參禮하였다면 그들은 상업이나 무역을 통해 성장한 세력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팔관회라는 祭典의 공간에서 탐라의 상징이었을 〈탐라곡〉에 포함된 노래에는 상업과 무역을 통해 성장하여 탐라를 지배하는 세력 집단의 이해 관계가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세력 집단의 관점에서 볼 때 뒤의 시의 대상이 되는 노래는 변풍 아닌 정풍을 담아낸 노래가 된다. 각종 화자가 瓷器와 쌀을 살고 북풍을 따라 오는 배를 애타게 기다리는 형상은 고려국에 통합된 탐라 지배 세력 집단과 탐라민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없는 조화로운 세계의 형상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탐라2〉가 ‘敎坊之法曲’으로서 가전에 등재되어 전승되는 시대는 정풍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정풍의 시대에서 변풍의 시대로의 변화, 이러한 변화는 무신집권기와 원나라 간섭기에 일어났다. 그런데 원나라 간섭기 중에도 충렬왕대 말기~충선왕대 초기에도 정풍의 시대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없지 않았다. 이제현의 아버지 李磧과 민사평의 아버지 閔頤은 그 움직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던 듯하다.

일종의 혁신 운동인 셈인데, 이 운동은 王室 內婚에 의한 혈연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로 가시화되기도 하였다. 그 와중에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성씨를 선정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드러난 것이 이른바 ‘宰相之宗’이다. ‘宰相之宗’에는 慶州金氏, 安定任氏, 慶遠李氏, 安山金氏, 鐵原崔氏, 海州崔氏, 孔巖許氏, 清州李氏, 坡平尹氏 등 무신집권기 이전에 성장한 9개의 가문과 彦陽金氏, 平康蔡氏, 唐城洪氏, 黃驤閔氏, 橫川趙氏 등 무신집권기 예 성장한 5개 가문, 그리고 대원 관계에서 성장한 平壤趙氏 가문이 포함되었다. 정풍의 시대 국가 질서 체계의 중핵을 이루고 있던 9개의 가문과 변풍의 시대에 국가 질서 체계의 중핵으로 진입한 6개의 가문이 ‘재상지종’으로 선정된 것이다.<sup>41)</sup>

하지만 충선왕 사후 이러한 혁신 운동은 빛을 발하게 되고 이후 고려 지배 권력 내부에서는 권력 쟁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공민왕의 즉위는 이 제현으로 하여금 이전 시기의 혁신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상지종'을 선정하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승상 겸 권정동행성사로서 고려국왕과 정동행성 수상 노릇을 할 때는 실현 가능성성이 높았을는지 모르지만 이후 전개된 정치 상황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소악부와 9편의 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현이 그와 같은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바로 그런 뜻을 민사평이 정확하게 파악하였기에 화답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화답한 소악부가 6장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을까?

탐라는 靖宗代에 팔관회에 參禮할 때도 그려하였듯이 공민왕 6년 2월에 탐라는 방물을 바치며 투항하였다. 이로써 탐라는 고려의 국가 질서 체계 안으로 편입된 셈이다. 그리고 그 편입의 과정은 〈탐라1〉의 수용의 과정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 〈탐라1〉은 변풍의 시대의 노래이지만 그 비판적인 목소리는 정풍의 시대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변풍의 시대에 정풍의 시대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다. 소악부 전편 9장의 대상이 된 노래들도 비록 변풍의 노래이지만 정풍의 시대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노래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악부 전편은 9편의 노래로 상징되는 세력 집단만큼은 국가 권력 체계 안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현이 이와 같은 인식 내용을 민사평에게 〈탐라〉의 노래를 예로 좀더 구체적으로 전하고자 하였다면 그 시기는 공민왕 6년 2월 이후였을 것이다. 소악부 제작 의도를 한층 분명하게 전달할 요량으로 소악부 후편을 지었다면 시기적으로 가까운 사건이나 사례로써 설명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현의 소악부 후편은 치사 이후에 지어

41) 충렬왕대 이후에 名門家으로 알려진 安東 金氏, 安東 權氏, 西山 廉氏, 幸州 奇氏, 碩山 宋氏, 南平 文氏, 儒州 儒氏 등 7개의 가문이 '재상지종'에서 제외된 까닭은 국사학계에서 의문점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朴龍雲, 『高麗時代史(下)』, 서울: 一志社, 1987, 532~533쪽.

쳤다고 추단할 수 있다.

공민왕이 즉위하면서부터 민사평은 실직에 있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비록 사퇴를 거듭하였지만 국가 통치 체계의 중심 자리에 나아가기도 하였던 이제현이 조일신의 난, 기철의 난 등으로 상징되듯 변풍의 시대에 성장한 세력 집단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권력 체계에 대한 인식 내용을 담은 시편들과 소악부를 민사평에게 화답하라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도 소악부 전편 또한 이제현이 실직에서 완전히 물러난 이후에 제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이렇게 볼 때 이제현이 소악부를 제작한 시기는 공민왕 6년 4월 이후에서 공민왕 7년 1월 이전 사이로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소악부 제작 시기를 이렇게 파악할 때 소악부의 제작 동기도 한층 핍진하게 규명할 수 있을 듯하다.

하필 이제현이 왜 민사평에게 화답을 요구하였을까? 이제현과 그의 아버지 이진은 민사평의 아버지 민적과 많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성장 과정은 사뭇 달랐다. 민사평의 아버지 민적은 다음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仙郎 출신으로 國仙으로 지목되어 東宮侍郎이 된 인물이다.

國俗에 어릴 때에는 반드시 僧侶를 따라 句讀를 익히도록 되어 있었다. 얼굴과 머리가 아름다운 이는 승려든 속인이든 모두 뱉들여 仙郎이라고 불렀는데 따르는 자가 때로는 수백 수천 인에 이르는 때도 있었다. 그 風俗은 新羅에서 시작된 것이다. 閔頤은 열 살 때 절에 가서 글을 배웠는데 성품이 英敏하여 한 번 배우면 곧 그 뜻을 훤히 알았다. 그럼 같은 눈썹에 풍채가 수려하였으므로 보는 사람마다 그를 사랑하였다. 忠烈王이 그 소문을 듣고 궁중에 불러 보고 國仙으로 지목하였다.<sup>42)</sup>

이와 같은 성장 과정은 민적이 성균관에서 수학한 儒生과는 다른 사상적 성향을 지녔으리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과 민

42) 國俗，幼必從僧習句。有面首者，僧俗皆奉之，號曰仙郎，聚徒或至千百，其風起自新羅。頤，十歲出就僧舍學，性敏悟，受書旋通其義，眉宇如畫，風儀秀雅，見者皆愛之。忠烈，聞之，召見宮中，目爲國仙。『高麗史』卷108 列傳 卷第21 閔宗儒。

적은 함께 충선왕을 극진히 모셨고 이제현 또한 그러하였다. 이제현이 소악부 전편을 지어 당대에 수립해야 할 국가 질서 체계에 대해 儒生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민사평에게 화답하기를 희구한 이유는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현이 소악부 전편과 함께 지어보낸 9편의 시편들에 대해 민사평은 9편의 시편들로 화답하였다. 그에 비해 소악부 9장에 대해서는 소악부 6장으로 화답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9편의 시편과 9장의 소악부의 대상이 된 노래는 한결같이 '재상지종'을 선정할 무렵 이전에 생성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에 비해 민사평의 소악부 6장의 대상이 된 노래 가운데에는 그 이후에 생성된 노래도 포함되어 있다. 〈三藏〉과 〈安東紫青〉이 바로 그것이다. 〈삼장〉의 제작에 간여한 인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인물은 吳潛이다. 그리고 충선왕의 즉위와 함께 권력의 주변으로 밀려난 대표적인 인물이 金方慶(安東金氏)이다. 두 편의 노래가 두 인물과 연관이 있는 노래라면 민사평은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 집단 또한 새로운 시대에 국가 권력 체계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현은 비록 치사해 있었지만 국왕의 요청에 따라 역사를 새롭게 편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종묘의 昭穆 位次를 정하는 작업도 하고 있었다(1357.8). 이는 周官 宗伯의 역할을 이제현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祭禮의 복원은 가야 체계의 복원으로 가시화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소악부의 제작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짐작도 가능하다.

소목 위차를 정하는 이제현의 논의에서 특이한 점은 이 소목 위차에 원종 이후 역대 왕들이 빠졌다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당시 공민왕이 회복하려는 국가 질서 체계가 원나라와 실질적인 사대관계를 맺게 된 이후의 시대 이전의 국가 질서 체계였음을 시사하는 바, 소악부와 함께 지은 9편의 시편들은 모두 그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 9편의 시편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원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현실로 수용하여 國壽를 보존하고자 하였던 인물들이다.

공민왕이 주도하는 사업을 보좌하는 동안 이제현은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사평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그의 생각도 알고 싶어했을 것이다. 소악부와 9편의 시편들은 그렇게 제작되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악부 제작 시기를 이제현이 치사한 공민왕 6년 4월 이후에서 공민왕 7년 1월 이전의 시기라면 소악부의 제작 시기에 대한 논의 또한 새롭게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 V. 결 론

소악부라는 문학적 현상은 단순히 ‘觀風俗，知得失，自考正’이라는 고대의 채시 논리로 설명하기 어렵다. 소악부의 原歌들이 반영하고 있는 ‘風俗’이 당대의 정치(‘時政’)의 得失을 따질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소악부의 제작 시기를 새로이 논증함으로써 소악부 제작의 현실적 동기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명하는 발판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제작 시기 추정에서 우선 이제현 소악부 후편의 제목 글에 등장하는 꽈충룡이란 인물의 행적에 주목하였다. 꽈충룡은 이제현이 자공거를 맡은 공민왕 2년(1353) 5월의 예부시에서 이색과 함께 급제한 인물로서 이색보다는 너랫 살 아래였다. 꽈충룡은 또 공민왕 7년에서 공민왕 8년 사이에 지면주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현 소악부 후편의 제작 시기는 아무리 소급하더라도 공민왕 2년(1353)년 5월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고, 아무리 늦추더라도 공민왕 7년 5월 이후로 늦추어 잡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익재집』 卷第四가 가급적 제작 연대순으로 배열되었다고 볼 때 소악부가 놓인 자리(공민왕 2년 5월 이후에서 공민왕 7년 1월 이전)와 거의 일치한다.

다음으로 소악부 후편의 ‘新翻’ 대상이 된 노래가 두 편의 〈탐라〉 가운데 한 편은 정풍 〈탐라〉요 다른 한 편은 변풍 〈탐라〉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제현이 소악부 제작 동기를 좀 더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 하필 이 두 편의 노래를 ‘新翻’한 이유를 따짐으로써 소악부 후편이 탐라(濟州)가 고려에 “來降獻方物”한 공민왕 6년 2월 이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이제현이 하필 민사평에게 소악부에 화답해 주기를 희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기에 이제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따짐으로  
써 소악부 제작 시기를 이제현이 치사한 '공민왕 6년(1357) 4월 이후에서 공  
민왕 7년(1358) 1월 이전'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  
다. 이 시기에 이제현은 국가 질서 체계의 상징인 제례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론이 소악부의 제작 동기의 핍진한 해명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음을 간단하게 논급하였다. 이 논급은 이 글이 소악부에 대  
한 새로운 연구의 출발점임을 한층 분명하게 하고 이어서 연구할 과제를 명  
시한 것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高麗史』(東亞大學校 古典編纂室, 『譯註高麗史』 第3·4 世家 3·4, 太學社, 1987)
- 『高麗史節要』(민족문화추진회 역, 『고려사절요』 IV, 1984(1968))
- 『登科錄前編』(마이크로필름,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卷2 56~57장.
- 『新增東國輿地勝覽』
- 『及菴詩集』(閔思平: 『韓國文集叢刊』 3)
- 『牧隱藁』(李穡: 『韓國文集叢刊』 3~5)
- 『埜隱逸藁』(田祿生: 『韓國文集叢刊』 3)
- 『益齋集』(李齊賢: 『韓國文集叢刊』 2)
- 『破閑集』(李仁老: 趙鍾業 編, 『韓國詩話叢編』 1, 太學社, 1996)
- 민족문화추진회 역, 『익재집』 I · I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1980 · 1979).
- 여운필 · 성범중 · 최재남 역, 『목은시고 2』, 월인, 2000.
- 『劉夢得文集』(劉禹錫: 『四部叢刊集部正編』 35, 臺灣商務印書館)
- 『樂府詩集』(郭茂倩: 『樂府詩集』 2, 台北: 里仁書局, 1984)
-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1 · 3,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1990).
- 朴魯春, 「高麗의 두 小樂府: 「益齋小樂府」와 「及菴小樂府」」, 『국어국문학』 84 호, 국어국문학회, 1980.10.
- 朴性奎, 「益齋 「小樂府」論」, 『東洋學』 第25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5.10.
- 朴龍雲, 『高麗時代史(下)』, 서울: 一志社, 1987.
- 朴現圭, 「李齊賢 · 閔思平의 小樂府에 관한 研究」, 『韓國漢文學研究』 第18輯, 韓國漢文學會, 1995.12.
- 朴惠淑, 「高麗末 小樂府의 樣式的 特性과 形成經緯」, 『韓國漢文學研究』 第14輯, 韓國漢文學會, 1991.12.
- \_\_\_\_\_, 『形成期의 韓國樂府詩 研究』, 한길사, 1991.
- 徐首生, 「高麗歌謠의 研究: 益齋小樂府에 限하여」, 『慶北大學校 論文集』 第五輯, 慶北大學校, 1962.2.
- 成昊慶, 「益齋 小樂府와 及菴 小樂府의 제작시기에 대하여」, 『韓國學報』 第61輯, 一志社, 1990.12.

- 李佑成, 「高麗末期 小樂府: 高麗俗謠와 士大夫文學」, 『韓國漢文學研究』 第1輯,  
韓國漢文學研究會, 1976.8.
- 李鍾燦, 「小樂府試攷」, 『東岳語文論集』 第1輯, 東岳語文學會, 1965.1.
- 임주탁, 「고려가요 「안동자청(安東紫青)」의 문학적 성격」, 『冠嶽語文研究』 第21  
輯,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96.12.
- \_\_\_\_\_, 「受容과 傳承 樣相을 通해 본 高麗歌謠의 全般的인 性格」, 『震檀學報』  
第83號, 震檀學會, 1997.6.
- \_\_\_\_\_, 「고려시대 국어시가의 창작 및 전승 기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2.
- 정용수, 「사대부 한시의 민가 수용: 여말의 소악부를 중심으로」, 『成大文學』 제  
28집, 成均館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92.2.
- 鄭惠媛, 「高麗漢譯詩歌攷」, 『冠嶽語文研究』 第5輯,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80.12.
- 趙然淑, 「益齋 小樂府의 사회적 성격 연구」, 『中韓人文科學研究』 第4輯, 中韓人  
文科學研究會, 2000.1.
- 崔美汀, 「高麗歌謠와 譯解樂府」, 『雨田辛鎬烈先生古稀紀念論叢』, 創作斗批評社,  
1983.
- 許興植, 『高麗科舉制度史研究』, 一潮閣, 1996(1981).
- 황병익, 「의재(益齋)·급암(及菴) 소악부(小樂府)의 제작과 그 배경에 관한 고찰」,  
『韓國民俗學報』 제11호, 한국민속학회, 2000.6.